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기쁜 소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공항에 가는 길에 교통체증에 걸리더라도 비행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또는 도착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은 이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유익한 일이 생기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만, 더욱 광범위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과 나눈 대화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줄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와 5 명의 전남편들의 관계와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종교와 민족으로 인해 본인이 특권을 가졌다거나 우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녀와 말하기 위해 엄청난 문화적 위험을 감수하고 전해 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다른 종교와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까지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반 이슬람 발언에 대한 반대 및 평화를 위한 우리의 서브웨이 사인 캠페인(subway sign campaign)은 수많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과 일반 대중들로 부터 “기쁜 소식”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전국 각지의 모임에서 만나는 여성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인종과 종교 또는 민족주의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빛어지는 적대감에 대한 반대 및 평화를 위해 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목소리는 매스컴의 보도와 비평, 소요의 불협화음 속에 잊혀져 버리곤 합니다. 가끔 비평가들은 “교회들은 (또는 유대교 회당이나 이슬람 지도자들은) 왜 이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인 캠페인은 소요를 평정하기 위한 정중한 발언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얼마 전에 저는 예배가 끝난 후 어떤 사람과 우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 저도 서브웨이에 있는 사인을 봤다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그 사인이 저를 교회로 돌아오게 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에게 기쁜 소식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 대해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지속시키는 비방과 대립의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평화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며, 그녀는 그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물가의 여인도 훌륭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인은 우리가 적대감, 차이, 공포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한 예입니다. 서브웨이 사인에 대한 강렬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데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반응은 또한 갈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초청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초청은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관여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적대감과 두려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기쁜 소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해 지기를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 헤리엇 올슨